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 75 호 [주제 제 25218 호] 주제 105 (2016)년 3월 15일 (화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주체적 국방과학기술의 새로운 첨단성과 탄도로케트 대기권재돌입환경모의시험에서 성공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탄도로케트 대기권재돌입환경모의시험을 지도하시였다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로속하고 세련된 령도의
손길에 의해 오늘 우리나라의
국력이 전례없이
강화되고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천만년미래
를 굳건히 담보할 주체의
핵보검이 나날이 날카롭게
벼리어지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국방력 강화사업에
서는 커다란 의의를 가지
는 또 하나의 자랑찬 첨단
성과가 이룩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으며
지난 수년간 고심어린 엔
구사업을 해온 우리의 국
방과학자, 기술자들은 자
체의 힘과 기술로 로케트
제작에 쓰이는 열보호재료
들을 연구개발하고 국산화
하는데 성공하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
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는 우리의 힘과 기술로
설계제작한 탄도탄전투부
첨두의 열안전성과 열보
호피복제침식정도평가를



위한 시험을 진행하는데 대한 명령을
주시고 직접 현지에 나오시여 탄도로
케트 전투부첨두의 대기권재돌입환경
모의시험을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리명철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김정식동지, 조선인민군 전략군
사령관 김학겸대장이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현지에서
국방과학연구부문과 군수공장의 일군들
이 맞이하였다.

이번 탄도로케트 전투부첨두의 대기
권재돌입환경모의시험은 탄도로케트의

대기권재돌입시 공기역학적 가열로 생
기는 높은 압력과 열흐름환경속에서 첨
두의 침식깊이와 내면온도를 측정하여
개발된 열보호재료들의 열역학적 구조
안전성을 확증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
으며 시험결과는 모든 기술적지표들을
만족시켰다.

이번 시험을 통하여 탄도로케트의
대기권재돌입시 조성되는 실지환경과
류사한 압력조건과 근 5배나 되는
열흐름속에서도 첨두의 열역학적 구조
안전성이 확증됨으로써 대륙간탄도로
케트 전투부의 재돌입밀음성을 확고

히 담보할수 있게 되었다.

시험에 참가한 전체 국방과학연구
부문의 과학자, 기술자, 일군들은 당
제7차대회를 향한 70돐전투의 철야
전군을 전투에서 평도하시는 그처럼
분망하신 속에서도 위험천만한 시험
현장에 까지 나오시여 자기들과 뜨거
운 정을 나누시고 숨결을 함께 하시
며 대성공에로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끝없는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시험
결과에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우리 당의 혁명적 병진로선을 실장
으로 받아안은 우리의 미더운 국방
과학자, 기술자, 군수로동계급이 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로케트공
업과 핵기술분야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군사대
국들이라고 자처하는 몇개 나라에서만
보유하고있는 대기권재돌입기술을 자
력자강의 힘으로 당당히 확보함으로써
남김없이 과시할 불타는 결의를 다짐
하였다.

활것이라고 하시면서 해당 부문에서
는 이를 위한 사전준비를 빈틈없이
할데 대하여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안겨주신
전투적파업을 맡아안은 국방과학자,
기술자들과 군수로동계급들은 당에
대한 절대적인 충정과 자력자강의 정
신으로 당중앙이 제시한 전투임무를
결사관철함으로써 영웅적군수로통계급
의 혁명정신과 투쟁본때를 다시 한번
남김없이 과시할 불타는 결의를 다짐
하였다.

본사정지보도반



혁명일화 《그것은 조선로동당의 승리요》

속도전의 포성놀이 사회주의경제전설에서 절제없는 비약을 이룩한 위대한 해, 주제 63(1974)년이 저물어가던 무렵 혁사적인 7·0일전투는 성과적으로 결속되었다.

함으로 우리 당과 조선혁사에 뛰어난 자취를 남긴 7·0일전투였다.

온 나라가 성스러운 격전을 승리적으로 끝낸 기쁨과 성정은 골fully 실례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 우리 당중앙위원회에서는 만사람을 격진시킬 이야기가 세워지고 있었으나 혁사의 그날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러 새로운 7·0일전투가 시작된 오늘 그 혁명일화를 새겨안는 인민의 마음은 드겁다.

경애하는 김정은은 당시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 달인 스승과 혁명 위업을 펼쳤을 때이며 조선로동당의 행보가 있는 우리 혁명의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란다는 것이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7·0일전투이다.』

위대한 변화를 조국땅에 아로새긴 7·0일전투승리의 날과 당시 사무처울수록 우리 장군님에 대항없는 참사와 최대의 영광을 드리고 싶은것이 인민의 마음이었다.

그 마음안고 위대한 장군님 계신 뜻으로 달려가는 한 군인이 있었다.

임금이 집무실앞에 이르렀을 때였다.

그의 앞을 막아서며 손가락을 입에 가져대대는 낮익은 임금들이 보였다.

방금 위대한 장군님께서 폭포에 드셨다는것이었다.

친 손수건을 포개어 눈을 가리우시고 의자등받이에 몸을 기대이신 위대한 장군님,

임금의 놀금은 물었다.

7·0일전투의 크고작은 모든 문제를 한몸에 안으시고 철야강행군을 단행하시느라 순간의 흥미마저도 모르셨던 우리 장군님 그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알게되었으나 당시에는 이남에 뚝섬에 드셨으였다.

전투가 끝났으니 폭점일정은 오늘만이라도, 이 순간 만이라도 우리 장군님께서 그대로 휴식하셨으면 하는 것이 임금들의 한결같은 실정이었다.

그런데 임금들의 실정에는 이왕포없이 정화종소리가 울리는것이 아닌가.

전투를 끝내고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끝나기 전에 냄비를 뒤집어놓으시는 아남에 뚝섬에 드셨으였다.

이윽하여 한 군인이 그에게 어제서 폭점에 드셨을 때 찾은 수잔으로 눈을 가리우고 계시았는가고 외람된 말씀을 드리였다.

『그건 내 비방이어서 허무로 말할수 없는것인데…』

본사기자 리금 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가 꾸바군로자 중앙대표단을 만났다

함께 미안하여 주신 꾸바와 조선사이의 체신협조관계는 라을 까스트로를 블트리지와 위대한 김정일동지와 블트리지와 함께 더욱 끊고발전되었다고 말하였다.

두 나라 인민이 풍물의 힘으로 서로 우호를 맺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르는 임금들의 심상마다에서 이런 신념의 목소리가 울리고있었다.

7·0일전투의 후일정으로 텔이 일하는 경애하는 원수님 밭들이 오늘의 7·0일전투에 펼쳐나온 천만군인의 심장에 전해져 새롭운 기적과 위훈을 넣게 할것이다.

본사기자 리금 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께서는 끝나기 전에 냄비를 뒤집어놓으시는 아남에 뚝섬에 드셨으였다.

이윽하여 한 군인이 그에게 어제서 폭점에 드셨을 때 찾은 수잔으로 눈을 가리우고 계시았는가고 외람된 말씀을 드리였다.

『그건 내 비방이어서 허무로 말할수 없는것인데…』

본사기자 리금 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가 꾸바군로자 중앙대표단을 만났다

그는 조선에서 이루어고있는 경이적인 성과들은 자기 수령의 행도법에 혁명의 기치를 높이 불고 힘차게 나아가려는 조선인민의 의지의 발현이라고 격찬하였다.

존경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강하고 사 회주의 강성과 가진성을 높여주시는 혁명의 힘으로 모든 시련과 난관을 이겨내며 승리의 영광을 끌어들였다.

우리나라 인민의 목소리가 울리고있었다.

7·0일전투의 후일정으로 텔이 일하는 경애하는 원수님 밭들이 오늘의 7·0일전투에 펼쳐나온 천만군인의 호소는 혁명의 불길이 새롭게 타번지게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자유이 혁명한 혁사의 땅에서 청서구역 청성합동농장과 청성원인민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였다.

우리나라 기체제작부문의 본보기, 표준으로 흡족히 전면변환 어느 한 풍장을 찾으신 경에 하늘에 흰 달이 놓여졌다.

우리나라 기체제작부문의 본보기, 표준으로 흡족히 전면변환 어느 한 풍장을 찾으신 경에 하늘에 흰 달이 놓여졌다.

우리나라 기체제작부문의 본보기, 표준으로 흡족히 전면변환 어느 한 풍장을 찾으신 경에 하늘에 흰 달이 놓여졌다.

우리나라 기체제작부문의 본보기, 표준으로 흡족히 전면변환 어느 한 풍장을 찾으신 경에 하늘에 흰 달이 놓여졌다.

우리나라 기체제작부문의 본보기, 표준으로 흡족히 전면변환 어느 한 풍장을 찾으신 경에 하늘에 흰 달이 놓여졌다.

우리나라 기체제작부문의 본보기, 표준으로 흡족히 전면변환 어느 한 풍장을 찾으신 경에 하늘에 흰 달이 놓여졌다.

우리나라 기체제작부문의 본보기, 표준으로 흡족히 전면변환 어느 한 풍장을 찾으신 경에 하늘에 흰 달이 놓여졌다.

우리나라 기체제작부문의 본보기, 표준으로 흡족히 전면변환 어느 한 풍장을 찾으신 경에 하늘에 흰 달이 놓여졌다.

우리나라 기체제작부문의 본보기, 표준으로 흡족히 전면변환 어느 한 풍장을 찾으신 경에 하늘에 흰 달이 놓여졌다.

우리나라 기체제작부문의 본보기, 표준으로 흡족히 전면변환 어느 한 풍장을 찾으신 경에 하늘에 흰 달이 놓여졌다.

우리나라 기체제작부문의 본보기, 표준으로 흡족히 전면변환 어느 한 풍장을 찾으신 경에 하늘에 흰 달이 놓여졌다.

우리나라 기체제작부문의 본보기, 표준으로 흡족히 전면변환 어느 한 풍장을 찾으신 경에 하늘에 흰 달이 놓여졌다.

우리나라 기체제작부문의 본보기, 표준으로 흡족히 전면변환 어느 한 풍장을 찾으신 경에 하늘에 흰 달이 놓여졌다.

우리나라 기체제작부문의 본보기, 표준으로 흡족히 전면변환 어느 한 풍장을 찾으신 경에 하늘에 흰 달이 놓여졌다.

우리나라 기체제작부문의 본보기, 표준으로 흡족히 전면변환 어느 한 풍장을 찾으신 경에 하늘에 흰 달이 놓여졌다.

우리나라 기체제작부문의 본보기, 표준으로 흡족히 전면변환 어느 한 풍장을 찾으신 경에 하늘에 흰 달이 놓여졌다.

우리나라 기체제작부문의 본보기, 표준으로 흡족히 전면변환 어느 한 풍장을 찾으신 경에 하늘에 흰 달이 놓여졌다.

우리나라 기체제작부문의 본보기, 표준으로 흡족히 전면변환 어느 한 풍장을 찾으신 경에 하늘에 흰 달이 놓여졌다.

우리나라 기체제작부문의 본보기, 표준으로 흡족히 전면변환 어느 한 풍장을 찾으신 경에 하늘에 흰 달이 놓여졌다.

우리나라 기체제작부문의 본보기, 표준으로 흡족히 전면변환 어느 한 풍장을 찾으신 경에 하늘에 흰 달이 놓여졌다.

우리나라 기체제작부문의 본보기, 표준으로 흡족히 전면변환 어느 한 풍장을 찾으신 경에 하늘에 흰 달이 놓여졌다.

우리나라 기체제작부문의 본보기, 표준으로 흡족히 전면변환 어느 한 풍장을 찾으신 경에 하늘에 흰 달이 놓여졌다.

우리나라 기체제작부문의 본보기, 표준으로 흡족히 전면변환 어느 한 풍장을 찾으신 경에 하늘에 흰 달이 놓여졌다.

우리나라 기체제작부문의 본보기, 표준으로 흡족히 전면변환 어느 한 풍장을 찾으신 경에 하늘에 흰 달이 놓여졌다.

우리나라 기체제작부문의 본보기, 표준으로 흡족히 전면변환 어느 한 풍장을 찾으신 경에 하늘에 흰 달이 놓여졌다.

우리나라 기체제작부문의 본보기, 표준으로 흡족히 전면변환 어느 한 풍장을 찾으신 경에 하늘에 흰 달이 놓여졌다.

우리나라 기체제작부문의 본보기, 표준으로 흡족히 전면변환 어느 한 풍장을 찾으신 경에 하늘에 흰 달이 놓여졌다.

우리나라 기체제작부문의 본보기, 표준으로 흡족히 전면변환 어느 한 풍장을 찾으신 경에 하늘에 흰 달이 놓여졌다.

우리나라 기체제작부문의 본보기, 표준으로 흡족히 전면변환 어느 한 풍장을 찾으신 경에 하늘에 흰 달이 놓여졌다.

우리나라 기체제작부문의 본보기, 표준으로 흡족히 전면변환 어느 한 풍장을 찾으신 경에 하늘에 흰 달이 놓여졌다.

우리나라 기체제작부문의 본보기, 표준으로 흡족히 전면변환 어느 한 풍장을 찾으신 경에 하늘에 흰 달이 놓여졌다.

우리나라 기체제작부문의 본보기, 표준으로 흡족히 전면변환 어느 한 풍장을 찾으신 경에 하늘에 흰 달이 놓여졌다.

우리나라 기체제작부문의 본보기, 표준으로 흡족히 전면변환 어느 한 풍장을 찾으신 경에 하늘에 흰 달이 놓여졌다.

우리나라 기체제작부문의 본보기, 표준으로 흡족히 전면변환 어느 한 풍장을 찾으신 경에 하늘에 흰 달이 놓여졌다.

우리나라 기체제작부문의 본보기, 표준으로 흡족히 전면변환 어느 한 풍장을 찾으신 경에 하늘에 흰 달이 놓여졌다.

우리나라 기체제작부문의 본보기, 표준으로 흡족히 전면변환 어느 한 풍장을 찾으신 경에 하늘에 흰 달이 놓여졌다.

우리나라 기체제작부문의 본보기, 표준으로 흡족히 전면변환 어느 한 풍장을 찾으신 경에 하늘에 흰 달이 놓여졌다.

우리나라 기체제작부문의 본보기, 표준으로 흡족히 전면변환 어느 한 풍장을 찾으신 경에 하늘에 흰 달이 놓여졌다.

우리나라 기체제작부문의 본보기, 표준으로 흡족히 전면변환 어느 한 풍장을 찾으신 경에 하늘에 흰 달이 놓여졌다.

우리나라 기체제작부문의 본보기, 표준으로 흡족히 전면변환 어느 한 풍장을 찾으신 경에 하늘에 흰 달이 놓여졌다.

우리나라 기체제작부문의 본보기, 표준으로 흡족히 전면변환 어느 한 풍장을 찾으신 경에 하늘에 흰 달이 놓여졌다.

우리나라 기체제작부문의 본보기, 표준으로 흡족히 전면변환 어느 한 풍장을 찾으신 경에 하늘에 흰 달이 놓여졌다.

우리나라 기체제작부문의 본보기, 표준으로 흡족히 전면변환 어느 한 풍장을 찾으신 경에 하늘에 흰 달이 놓여졌다.

우리나라 기체제작부문의 본보기, 표준으로 흡족히 전면변환 어느 한 풍장을 찾으신 경에 하늘에 흰 달이 놓여졌다.

우리나라 기체제작부문의 본보기, 표준으로 흡족히 전면변환 어느 한 풍장을 찾으신 경에 하늘에 흰 달이 놓여졌다.

우리나라 기체제작부문의 본보기, 표준으로 흡족히 전면변환 어느 한 풍장을 찾으신 경에 하늘에 흰 달이 놓여졌다.

우리나라 기체제작부문의 본보기, 표준으로 흡족히 전면변환 어느 한 풍장을 찾으신 경에 하늘에 흰 달이 놓여졌다.

우리나라 기체제작부문의 본보기, 표준으로 흡족히 전면변환 어느 한 풍장을 찾으신 경에 하늘에 흰 달이 놓여졌다.

우리나라 기체제작부문의 본보기, 표준으로 흡족히 전면변환 어느 한 풍장을 찾으신 경에 하늘에 흰 달이 놓여졌다.

우리나라 기체제작부문의 본보기, 표준으로 흡족히 전면변환 어느 한 풍장을 찾으신 경에 하늘에 흰 달이 놓여졌다.

우리나라 기체제작부문의 본보기, 표준으로 흡족히 전면변환 어느 한 풍장을 찾으신 경에 하늘에 흰 달이 놓여졌다.

우리나라 기체제작부문의 본보기, 표준으로 흡족히 전면변환 어느 한 풍장을 찾으신 경에 하늘에 흰 달이 놓여졌다.

우리나라 기체제작부문의 본보기, 표준으로 흡족히 전면변환 어느 한 풍장을 찾으신 경에 하늘에 흰 달이 놓여졌다.

우리나라 기체제작부문의 본보기, 표준으로 흡족히 전면변환 어느 한 풍장을 찾으신 경에 하늘에 흰 달이 놓여졌다.

우리나라 기체제작부문의 본보기, 표준으로 흡족히 전면변환 어느 한 풍장을 찾으신 경에 하늘에 흰 달이 놓여졌다.

우리나라 기체제작부문의 본보기, 표준으로 흡족히 전면변환 어느 한 풍장을 찾으신 경에 하늘에 흰 달이 놓여졌다.

우리나라 기체제작부문의 본보기, 표준으로 흡족히 전면변환 어느 한 풍장을 찾으신 경에 하늘에 흰 달이 놓여졌다.

우리나라 기체제작부문의 본보기, 표준으로 흡족히 전면변환 어느 한 풍장을 찾으신 경에 하늘에 흰 달이 놓여졌다.

| 공동구호에서 |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착시키고 일체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다그치라!

운전대를 함께 질 수 있는 실력

국가과학원 조종기계연구소 초금당위원회 사업에서

과학기술이 부강조국건설을 주동하는 기관처럼 과학자, 기술자들은 그 기관처럼 물이가 되는 중량물을 엘리베이터에 장입 하다가 끌어내기도 하고 수면°C로 가열될 제작을 제작해 놓았습니다. 과학기술 출판과 기관사에 의해 결정된다면 그 기관사의 역할은 어떻게 높아지는가.

그에 대한 대답은 우리는 당제 7차대회를 앞두고 눈부신 성과를 이룩하고 있는 국가과학원 조종기계연구소 초금당위원회 사업에서 찾게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연구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당조직들에서 과학자, 기술자들의 사업과 생활에 깊은 관심을 끌리고 기획되는 애로를 물어주면서 그들의 정신력을 적극 발휘하여야 합니다.》

이곳 연구소에는 어느 한 광장의 엘리베이터를 무인화하기 위한 풍선으로 새롭게 개발해야 할 바에 대해서 찾았습니다.

연구파제를 놓고 과학자들은 주저하였다.

아직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였던 것이다. 지난

기간 그들이 연구완성하여 현장

에 도입하였다 CNC설비들이나 로보트들은 달렸다. 수백kg이 되는 중량물을 엘리베이터에 장입 하다가 끌어내기도 하고 수면°C로 가열될 제작을 제작해 놓았습니다. 과학기술은 신집드로이트에 끌어 들었다.

초금당일군은 그들과 때없이 마주쳤다. 과학자들과 함께 새도록 천진한 도론을 벌이며 엘리베이터로 보드를 합리적으로 제작

할 실계방법들을 연구하였지만 그것을 선뜻 연구소 과학정의회에 내놓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의 실정은 남먼저 해들이 본 일군이 있었다. 초금당비서 리길주동지였다.

《물론 어려운 징입니다. 하지만 당조직은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험하게 저해를 학제 운전대를 함께 끌어내고 분에게 끌어

놓아야 했다.

과학자들에게 있어서 세일기 때는 고심 어린 노력을 걸파

가 성공의 열매로 맛혀졌을 때이고 그보다는 자기들의 창작성이 비롯한 연구집단의 과학자들은 엘리베이터로 보드를 끌어

를 끌었을 때이다. 당조직의 적극적인 지원은 과학자들에게 비약의 나래를 끌어 주었다. 과학자들은 신집드로이트에 끌어

들었다. 이 사실은 이후 초금당일군이 얼마나 높은 실력을 지니고 과학자들의 사업을 참신하게 진행하였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실례에 불과하다.

최근 연구소에서 인민경제의 현대화, 정부계획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할 각종 로보트와 수자조종장치, 사보구통장치 등을 연구개발하고 도입하는 전후에는

부수신 성과를 이룩하고 있는 것

은 바로 당조직의 역할과 메여

놓고 생각할 수 없다.

이미 한 사설은 과학기술의 기관차를 물고는 대해서 당일군

들의 책임성과 실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생동한 실례로 된다.

그러니 결론은 명백하다. 책임성과 함께 실력을 겸비해야 유통센터를 활용할 수 있다 것이다.

오늘도 이곳 초금당일군들은 실리전의 앞장에서 과학자들과 함께 과학기술의 기관차를 힘차

게 물어가며 70일전후에서

기획된 성과를 이룩해나가고 있다.

본사기자 채인철

함경북도에

서 온실환경총합

측정장치설치사

업이 성과적으로

결속되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시, 군

들의

1정보

군은

온실에

깊이

들어가

이

사업이

인민생

활문제를

천만가지

국사가

운데

수백개의

온실환경총합

측정장치가

설치되었다.

온실환경생산을

보다

파학회

하여

더

많은

온실남새를

생산

할수

있을

도

하나의

단보가

마

련된

걸과

당제 7차대회가

열

렸다.

그

들은

온실에

들어

나갔다.

도당위원회

군들은

현실에

깊이

들어가

이

사업이

인민생

활문제를

천만가지

국사가

운데

이

장치해결을

위해

높이

뛰었다.

는것을

다시금

절감한

도안의

온실남새부문

군들과

근로자

들을

기세드높이

온실남새생산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본사기자

장

영

았다.

이

장치설치사업을

통하여

당

정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

의

정신을

지니고

온

활화하기

위해

높이

뛰었다.

는것을

다시금

온

설립

하는

것을

나

았다.

이

장치설치사업을

통하여

온

설립

하는

것을

나

았다.

이

장치설치사업을

통하여

온

설립

하는

것을

나

았다.

이

장치설치사업을

통하여

온

설립

하는

것을

나

았다.

이

장치설치사업을

통하여

온

설립

하는

것을

나

았다.

이

장치설치사업을

통하여

온

설립

하는

것을

나

았다.

이

장치설치사업을

통하여

온

설립

하는

것을

나

았다.

이

장치설치사업을

통하여

온

설립

하는

것을

나

았다.

이

사랑의 전설로 길이 전해갈 혁명일화와 더불어 축복받은 행복한 삶

인민의 결에는 위대한 어버이가 계신다

대홍단군 서두리 19인민반 민원식

한생토록 잊지 못할 뜨거운 추억을 안고 사는 사람은 본명 행복한 사람일 것이다.

대홍단군 서두리 19인민반에 살고 있는 민원식, 박혜금동부들이 그런 사람들이다. 잊지 못할 추억과 더불어 행복했던 그 순간에 유풍의 미술을 엿보고 대홍단의 이팔처럼 변함없이 충성의 한길을 얹세게 가고 가는 그들의 삶을 두고 우리는 이를 다운 추억에 염두 되는 생활의 진리를 말하고 싶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그 누구보다도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시였으며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국청사에 영원히 빛날 불멸의 업적을 이루어하신 걸작이시입니다.》

불어오는 바람은 아직도 차지 만 앙동하는 봄의 정서는 멀어지지 못하는 듯싶다. 그러나 우리 주인공들이 살고있는 북면 땅은 지금도 하얀 눈으로 덮여 있다. 대홍단의 그 하얀 대지를 그려보느라 가슴프를 주어 깔리며 점점이 젖어들었다.

민원식, 박혜금부부, 그들은 우리 인민들속에 널리 알려진 대홍단군의 부모이다.

지금도 뻬베인촌에서는 주제 89(2000)년 3월 대홍단군의 한 제대 군인가정에 절체쳤던 가슴뜨거운 화족이 자주 나오고 한다.

지금 민원식동부는 대홍단군

그날 세대군인 민원식동부의 안에 박혜금동부는 어려움도 다 잊고 고향의 친정아버지에게 말하고 대홍단군 제 5작업반으로 일하고 있다.

대홍단군의 말에 의하면 민원식동부가 일하는 제 4작업반은 세마다 감자생산계획을 130% 넘쳐 수행하는 혁신자사업반이라고 한다.

우리 장군님께서는 바쁘신 현지지도의 징집에서도 그의 외랑된 청을 잊지 않으시고 청탁을 해주시면서도 제일 뜻이 깊은 이를 중에서도 제일 뜻이 깊은 이름을 물려 아들을 낳으면 대홍이라고 하고 딸을 낳으면 홍단이라고 하자고 정답마자 말을 하시였다.

대홍이와 홍단이, 삶의 뿌리를 얹세게 내리고 영원히 대홍단의 이갈처럼 영광의 대지를 대를 이어 가꾸어갈 그들의 결심을 헤아리시어 우리 장군님께서 깊은 뜻을 담아 주시신 이름이었다.

그날의 사연을 안고 민홍단이 테여나 고교성을 터뜨릴 때 온 나라 사람들이 대홍단으로 얼마 남지 않은 그의 동생 복단도 이날 우리 주인공들이 얹세게 자라고 있다. 어버이 장군님의 사랑을 그대로 이어주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온 나라가 다 아는 대홍단의 민홍단소녀선생 소년단장팀 6·8·6 경축행사 대표로 꽝장을 통해 주시고 사랑의 활동에 압마 기념사진도 찍어주었다.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손에 압마 그룹부부는 당시 각동수령명장을 맨 앞장에서 출정으로 받들어왔다.

자녀와 그려운 명장을 가슴에 안고 그룹부부는 당시 각동수령명장을 맨 앞장에서 출정으로 받들어왔다.

민원식, 박혜금부부는 대홍단군

그날 회망의 나래를 활짝 펼치였다.

키워주고 보살펴준 어머니 조국에 충성도 생정도 아낌없이 바칠 때 옥같은 마음을 안고 나온 그은성이 어찌 홍단이네 짐에만 어려웠는지인가.

현지지도의 길을 걸으시는 위대한 수령님들을 만나뵈온 사람들, 영광의 대회장에서 풍파가 되어온 일련의 희생을 보고 있다.

그 희생을 보고는 그들의 모습을 높이 평가하고 찬양하면서 결의를 다졌다.

경애하는 원수님, 아버지 장군님과 원수님의 품속에서 대홍단의 민홍단이와 광명성제 업적의 높은 평가를 받았을 때 후회는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

《할머니는 늘 놓아두고 놓았다고 이야기하곤 했지요. 그 병사가 바로 온 나라가 다는 부모를 떠나고 그들의 품속에서 살고 있는 민원식동부는 대홍단군의 부모이다.

얼마후에 고급중학교를 졸업하게 되는 그의 품은 지금 강계 농림대 학교에 입학하고 있다.

할머니와 어버지, 어머니, 온 가족의 소원을 안고 구봉명의 새 주인이 되려는 것이 그의 희망이다. 자기 가정을 구봉명의 새 주인에게 놀라울 정도로 놀라운 눈으로 염려해온 시대와 조국에 대한 사랑과 민족에 대한 사랑이 그려운 눈물이 고여 있었다.

온 제염소의 복을 다 태고 소금밭에 첫걸음을 떠밀었던 딸의 모습이 그들의 눈앞에 굳uxtap; 입은 어엿한 병사의 모습으로 고여 있었다.

온 제염소의 복을 다 태고 소

금밭에 첫걸음을 떠밀었던 딸의 모습이 그들의 눈앞에 굳uxtap; 입은 어엿한 병사의 모습으로 고여 있었다.

그들은 만경대 옛길 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은 다음 만경대의 혁명사적들을 참관하였다.

대표단은 또한 주체사상탑과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과학기술전당, 만경대 학생소년궁전 등을 참관하였다.

마지막으로 대홍단군은 대홍단군의 미술을 안고 만경대고향집에 봄꽃을 전정하였다.

그들은 만경대 옛길 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은 다음 만경대의 혁명사적들을 참관하였다.

대표단은 또한 주체사상탑과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과학기술전당, 만경대 학생소년궁전 등을 참관하였다.

영광의 대회장을 맞이해나가는 오늘의 하루하루를 충정의 순간순간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것을 명심한 일군들은 전투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었다.

모두가 어머니조국을 위하여 열백량을 떠미 일해도 성자하지 않는 끝없는 일유심으로 철전체작을 위한 철야전에 떨쳐나섰다.

이들의 투쟁으로 마지막에는 불길이 물이 철진 힘을 더 원만히 품을 있었다.

군체임일군들은 철전체작에 필요한 수십의 철관을 마련해

서두농장 제 4작업반 부문당비

서로, 그의 안에 박혜금동부는 제 5작업반 포전판리원으로 일하고 있다.

농장군의 말에 의하면 민원식동부가 일하는 제 4작업반은 세마다 감자생산계획을 130%

넘쳐 수행하는 혁신자사업반이라고 한다.

우리 장군님의 사랑의 손길이 어려운 홍단이네 집에 몇몇 전경에 대한 어버이의 정에 숨길을 잊고 살지구나.》

우리 장군님의 사랑의 손길이

이제 농정을 맞으며 은정어린 선물

을 보내주시였다.

그날은 농장, 온 마을사람들

이 홍단이네 집에 모여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위대한 어버이

의 사랑을 노래하였다.

지금도 백두산혁명전적지에

로의 압사령길에 오른 압사자

들은 꼭꼭 홍단이네 집을 방문

한다고 한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초상화를

집집에, 사무실들에 모시고 고

마음의 풍물과 부르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리에게 풀어주고 미래

를 창조하는 우리 인민.

하기에 우리는 오늘 위대한

어버이의 사랑 속에 행복을 누리

온 한 제대 군인 가정의 삶을 아

름다운 일과 함께 되어보며 우

리 인민은 한데 어버이들을

위해 충성다운것을.

그 중앙의 대오숙에 바로 민

홍단이네 가정도 있고 축복이네

가정과 축복이네 가정도 있고

온정이 넘친다. 하루에

과학기술 발전에 민족의 존엄도, 강국의 미래도 있다

과학기술의 힘에 대해서는 누구나 시사각각 느끼고 있다. 인류발생의 첫 시기 흑지 물고기 한条约에서 순종하면서 살던 사람들이 자연의 정복으로 무관한 우주에로까지 자기의 영역을 넓히고 있는 것은 창조적인 활동과정에 제독한 지식과 기술의 덕이다. 그래서 인류사에서 발전과정은 자주성을 원하는 인민들의 투쟁의 핵심이자 과학기술 발전의 핵심이라고 한다.

새 세기에 들어와 과학기술의 역할은 비단 단파학의 세계를 절명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리고 있다. 떨어지며 기술의 노예가 된다는 말은 지식경계세대의 특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현시대는 과학기술의 시대, 지식경계세대이며 과학기술의 발전수준에 의하여 국력이 결정되고 나라와 민족의 지위와 전도가 좌우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발전된 나라와 땅을 전진 나라도로 갈라져 있다. 그 차이는 본질에서 있어서 과학기술에 있다. 일상 발전도상나라들은 많은 경우 기술적으로 뒤떨어지고 경제적 대로가 약화되면서 생산물의 품질과 질적측면에서 용당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과학기술은 험난한 경쟁을 벌리고 있다. 떨어지며 기술의 노예가 된다는 말은 지식경계세대의 특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현대 과학기술의 안락침이 없이는 그 어느 나라와 민족은 암울하고 경제를 발전시킬 수 없고 유효한 물질문화적 성장을 누릴 수 없다. 과학기술이 뒤떨어지면 자연의 경제발전에 서 위치를 차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다른 나라들에 미리를 속이고 구걸외교에 나서게 된다.

자립경제를 떠나서 자주정치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역사의 경계이다.

제국주의자들의 첨단과학기술에 대한 독점과 불평등으로 과학기술은 천시를 받았을 때를 말할 필요는 없다. 과학기술은 뒤떨어지면 자연의 경제발전에 서 위치를 차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다른 나라들에 미리를 속이고 구걸외교에 나서게 된다.

나라들 사이에 떨어지는 협력과 교류의 밀착도에도 경제발전의 기

초로 되는 과학기술문제가 놓여 있다. 상품시장의 확대와 투자환경마련, 새로운 경제대상설 등 경제문제를 기준으로 하여 나라들 사이의 정치외교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은 적어도 100년 이상 뒤에 이전 기술을 수출하도록 하는 것을 법제화하고 있다. 일본은 새로운 기술이나 다른 다음에야 종전기술을 다른 나라와 이전시키고 있다.

다른 나라들에 대한 과학기술정책 담합동에 열을 끌리는 것도 제국주의자들이이다. 다른 나라의 과학기술 경쟁 대상들에 대한 경량화활동을 전문으로 한 미국회사는 1990년 대초에 벌써 1300여개나 되었다. 일본의 한 회사는 세계 각국에 30000명의 정보일군들을 운영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과학기술을 독점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로부터 나라이며 민족의 불행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역사의 경계이다.

제국주의자들의 첨단과학기술에 대한 독점과 불평등으로 과학기술은 천시를 받았을 때를 말할 필요는 없다. 과학기술은 뒤떨어지면 자연의 경제발전에 서 위치를 차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다른 나라들에 미리를 속이고 구걸외교에 나서게 된다.

나라들 사이에 떨어지는 협력과 교류의 밀착도에도 경제발전의 기

야의 성과들이 도입되지 못하게 책동하고 있다. 설사 발전도상나라들에 대한 과학기술을 넘겨준다고 하여도 알맹이를 빼거나 시대적으로 뒤떨어진 것을 준다.

미국은 적어도 100년 이상 뒤에 이전 기술을 수출하도록 하는 것을 법제화하고 있다. 일본은 새로운 기술이나 다른 다음에야 종전기술을 다른 나라와 이전시키고 있다.

다른 나라들에 대한 과학기술정책 담합동에 열을 끌리는 것도 제국주의자들이이다. 다른 나라의 과학기술 경쟁 대상들에 대한 경량화활동을 전문으로 한 미국회사는 1990년 대초에 벌써 1300여개나 되었다. 일본의 한 회사는 세계 각국에 30000명의 정보일군들을 운영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과학기술을 독점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로부터 나라이며 민족의 불행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역사의 경계이다.

제국주의자들의 첨단과학기술에 대한 독점과 불평등으로 과학기술은 천시를 받았을 때를 말할 필요는 없다. 과학기술은 뒤떨어지면 자연의 경제발전에 서 위치를 차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다른 나라들에 미리를 속이고 구걸외교에 나서게 된다.

나라들 사이에 떨어지는 협력과 교류의 밀착도에도 경제발전의 기

의 자주권과 리익도 저쳐놓을 수 없다는 심각한 교훈을 주고 있다. 경기가 되고 강국이 되는 길은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있다.

그 누구도 첨단과학기술을 선사하지 않는다. 오직 자기의 힘, 자기의 지혜에 의거하는 길만이 제국주의자들의 과학기술 첨단화를 짓누르고자 하는 경쟁을 가로막고자 하는 경쟁에 투입하는 핵심적인 원칙이다.

발전도상나라들은 발전원자본주의로 만드는 것이 제국주의자들의 전략적 목표였다.

과학기술의 시대인 오늘에는 첨단기술의 평판을 풀어놓고 뛰어난 나라들을 과학기술로 예속시키고 심지어 만드는 것이 중요한 침략수법으로 되었다. 현대 과학기술수단을 이용해 실리포트장을 벌리려는 것

이미국의 국책으로 된 사실은 그것

을 다시금 밝혀준다.

오늘 발전도상나라들은 과학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사회정치적 및 경제적 대처가 갖추어져 있다.

종수부한 인적 및 물적 자원, 새 사회건설에서 쌓은 경험과 과학기술성과를, 남남협조를 위해 마련된 다양한 경제협조구조 등을 발전도상나라들이 과학기술을 펼칠 전망에 있어 가능성이 조건을 지어주고 있다.

물체는 매개 나라 정부와 인민, 과학자, 기술자들이 어떻게 분별하여 일어서는가에 달려있다.

과학기술발전의 주체는 해당 나라인민이다. 제국주의자들의 과학기술

문화에 자체의 과학기술발전 전략으로

맞서겠다는 든든한 배심과 자신

실을 가져야 한다.

지금 발전도상나라들은 경

세분야는 물론 과학기술분야에서 발

전권 나라들과 경쟁을 벌리는 나라들이 적지 않다. 그 비결은 교육사업을 강화하고 능력 있는 과학자, 기술자들을 많이 키워내고 있다. 이 나라들에서는 현대적인 공장을 하나 건설해도 차세대 세력들에게 준엄한 철주를 내리었으며 다른 나라의 일선 기술도 차지하는 경지에 빠져나가고 있다.

그 누구도 첨단과학기술을 선사하지 않는다. 오직 자기의 힘, 자기의 지혜에 의거하는 길만이 제국주의자들의 과학기술 첨단화를 짓누르고자 하는 경쟁에 투입하는 핵심적인 원칙이다.

발전도상나라들은 발전원자본주의로 만드는 것이 제국주의자들의 전략적 목표였다.

과학기술의 평판을 풀어놓고 뛰어난 나라들은 과학기술로 예속시키고 심지어 만드는 것이 중요한 침략수법으로 되었다. 현대 과학기술수단을 이용해 실리포트장을 벌리려는 것

이미국의 국책으로 된 사실은 그것

을 다시금 밝혀준다.

하지만 우리는 원주민들의 필요하고 압박한 경제적 대처가 갖추어져 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주장복의 경계는 반기운과 함께 청명하고 희망으로 세계화를 품고 있다.

우리의 힘, 우리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세계화동으로 만들고 이 땅우주에 선원한다.

역강국, 우주강국의 경계에 들어선 우리에게 절명 못할 과학의 요새란 없다.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원주민들의 첨단기술과 혁신적인 원주민들은 세계에 선원한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주장복의 경계는 반기운과 함께 청명하고 희망으로 세계화를 품고 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주장복의 경계는 반기운과 함께 청명하고 희망으로 세계화를 품고 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주장복의 경계는 반기운과 함께 청명하고 희망으로 세계화를 품고 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주장복의 경계는 반기운과 함께 청명하고 희망으로 세계화를 품고 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주장복의 경계는 반기운과 함께 청명하고 희망으로 세계화를 품고 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주장복의 경계는 반기운과 함께 청명하고 희망으로 세계화를 품고 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주장복의 경계는 반기운과 함께 청명하고 희망으로 세계화를 품고 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주장복의 경계는 반기운과 함께 청명하고 희망으로 세계화를 품고 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주장복의 경계는 반기운과 함께 청명하고 희망으로 세계화를 품고 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주장복의 경계는 반기운과 함께 청명하고 희망으로 세계화를 품고 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주장복의 경계는 반기운과 함께 청명하고 희망으로 세계화를 품고 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주장복의 경계는 반기운과 함께 청명하고 희망으로 세계화를 품고 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주장복의 경계는 반기운과 함께 청명하고 희망으로 세계화를 품고 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주장복의 경계는 반기운과 함께 청명하고 희망으로 세계화를 품고 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주장복의 경계는 반기운과 함께 청명하고 희망으로 세계화를 품고 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주장복의 경계는 반기운과 함께 청명하고 희망으로 세계화를 품고 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주장복의 경계는 반기운과 함께 청명하고 희망으로 세계화를 품고 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주장복의 경계는 반기운과 함께 청명하고 희망으로 세계화를 품고 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주장복의 경계는 반기운과 함께 청명하고 희망으로 세계화를 품고 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주장복의 경계는 반기운과 함께 청명하고 희망으로 세계화를 품고 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주장복의 경계는 반기운과 함께 청명하고 희망으로 세계화를 품고 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주장복의 경계는 반기운과 함께 청명하고 희망으로 세계화를 품고 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주장복의 경계는 반기운과 함께 청명하고 희망으로 세계화를 품고 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주장복의 경계는 반기운과 함께 청명하고 희망으로 세계화를 품고 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주장복의 경계는 반기운과 함께 청명하고 희망으로 세계화를 품고 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주장복의 경계는 반기운과 함께 청명하고 희망으로 세계화를 품고 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주장복의 경계는 반기운과 함께 청명하고 희망으로 세계화를 품고 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주장복의 경계는 반기운과 함께 청명하고 희망으로 세계화를 품고 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주장복의 경계는 반기운과 함께 청명하고 희망으로 세계화를 품고 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주장복의 경계는 반기운과 함께 청명하고 희망으로 세계화를 품고 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주장복의 경계는 반기운과 함께 청명하고 희망으로 세계화를 품고 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주장복의 경계는 반기운과 함께 청명하고 희망으로 세계화를 품고 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주장복의 경계는 반기운과 함께 청명하고 희망으로 세계화를 품고 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주장복의 경계는 반기운과 함께 청명하고 희망으로 세계화를 품고 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주장복의 경계는 반기운과 함께 청명하고 희망으로 세계화를 품고 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주장복의 경계는 반기운과 함께 청명하고 희망으로 세계화를 품고 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주장복의 경계는 반기운과 함께 청명하고 희망으로 세계화를 품고 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주장복의 경계는 반기운과 함께 청명하고 희망으로 세계화를 품고 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주장복의 경계는 반기운과 함께 청명하고 희망으로 세계화를 품고 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주장복의 경계는 반기운과 함께 청명하고 희망으로 세계화를 품고 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주장복의 경계는 반기운과 함께 청명하고 희망으로 세계화를 품고 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주장복의 경계는 반기운과 함께 청명하고 희망으로 세계화를 품고 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주장복의 경계는 반기운과 함께 청명하고 희망으로 세계화를 품고 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주장복의 경계는 반기운과 함께 청명하고 희망으로 세계화를 품고 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주장복의 경계는 반기운과 함께 청명하고 희망으로 세계화를 품고 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주장복의 경계는 반기운과 함께 청명하고 희망으로 세계화를 품고 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주장복의 경계는 반기운과 함께 청명하고 희망으로 세계화를 품고 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주장복의 경계는 반기운과 함께 청명하고 희망으로 세계화를 품고 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주장복의 경계는 반기운과 함께 청명하고 희망으로 세계화를 품고 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주장복의 경계는 반기운과 함께 청명하고 희망으로 세계화를 품고 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주장복의 경계는 반기운과 함께 청명하고 희망으로 세계화를 품고 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주장복의 경계는 반기운과 함께 청명하고 희망으로 세계화를 품고 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주장복의 경계는 반기운과 함께 청명하고 희망으로 세계화를 품고 있다.

<p